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FTA이행과 박종한 과장(2110-4801), 윤창현 팀장(2110-4802), 정지선 사무관(2110-4592)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 FTA 발효후(12.4월 - 13.2월) 중소기업 對美 수출 1.26% 증가 (대세계 수출 0.38% 증가)
- 중소기업의 생산,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 한-미 양국은 '11.10월 한-미 통상장관간 서한교환을 통해 설치된 한-미 FTA 중소기업작업반 활동의 일환으로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작업을 각각 실시함

※ 미측은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실시한 분석 보고서를 최근(5.23) 발표(기배포된 5.27일자 산업부 보도설명자료 참고 요망)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성균관대학교 팀 수행)을 통해 한-미 FTA 이행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작업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동 작업을 완료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상세 내용 별첨 참조)

o (수출) '12.4월-'13.2월 중소기업 對美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 (동기간 중소기업 대세계 수출은 0.38% 증가)

- 석유화학(10.9%) 및 폴리에스터 섬유(17.3%) 등은 수출 증가 시현
- 자동차부품(0.21% 감소)*, 전기전자(2.96% 감소), 일반기계(5.3% 감소) 등은 수출이 다소 감소

* 동기간중 전체 기업의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은 10.17% 증가한 바, 중소기업의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필요

o (수입) '12.4월-'13.3월 석유화학(9.2% 증가), 섬유(0.1% 증가)는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13.8% 감소) 등은 감소하여 산업별 수입 동향 상이

o (생산 및 고용에 대한 영향 추정)

- 중소기업의 총 매출 및 원부자재 조달구조에서 對美 교역비중이 낮아 생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

* '05년 생산지수(=100) 대비 '12년 생산지수 변화
  - (2월) 125.5, (3월) 131.9, (9월) 123.8

- 한·미 FTA 발효 전후('12.1월-'13.1월) 중소기업의 고용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

* 중소기업의 고용규모 추이(단위: 천명)
  - ('12.1) 8440.1, ('12.3) 8614.1, ('12.8) 8590.0, ('13.1) 8438.8

□ 한-미 양국은 앞으로 중소기업작업반 등을 통해 금번에 발표된 양국 보고서를 기초로 한-미 FTA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첨부 :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우리측 보고서 상세 내용)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윤창현 팀장(☎ 02-2110-48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한 · 미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연구책임자: 김영한(성균관대학교)

2013.5

□ 동 보고서에 제시된 분석 및 평가는 연구수행자의 연구 결과임.

□ 한·미 FTA가 발효된 지 불과 1년이 경과되어 가용한 통계의 제약 등에 의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분석에 한계 존재

- 한·미FTA 변수로 인한 영향을 여타 요인의 영향으로부터 분리하여 유의미한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 가용한 자료로는 한계 (생산·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측정하기 위한 통계가 한정되어 가용한 자료로 추정)

- 일부 자료는 해당부처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1차 자료에 기초

□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11.10월 한·미 양국 통상장관간 서한교환을 통해 설치된 '중소기업 작업반'의 활동으로 규정된 "한·미FTA의 이행이 중소기업에 의한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분석을 위해 현재까지 활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최대한 분석·추정 작업을 진행

I. 한·미FTA를 전후한 한국기업의 대미수출

□ (**대미 수출동향**) '12년 우리나라의 대세계수출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은 4.1% 증가**

□ (**대미 수출비중**) '04-'11년간 대미 수출비중은 지속적 감소 추세이었으나, '12년 10.7%로 반등하여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대미수출 증대 효과 시현

<한국의 대미수출 규모 및 추이>

기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미수출액 (백만달러)	42,849	41,343	43,184	45,766	46,377	37,650	49,816	56,208	58,526
전년비 증가율 (%)	25.2	△3.5	4.5	6	1.3	△18.8	32.3	12.8	4.1
총수출대비 비중 (%)	16.9	14.5	13.3	12.3	11.0	10.4	10.7	10.1	10.7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DB, 무역협회 KOTIS DB

□ **(수혜/비수혜품목 수출)** '12.3-12월 미국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된 **FTA 수혜품목의 대미수출은 14.6% 증가**하였으나, **非수혜품목은 2.9% 감소**

< FTA 품목군별 미국의 對한국 수입동향>

연도	2011.3월-12월	2012.3월-12월		
	금액(억달러)	금액(억달러)	증가율(%)	비중(%)
FTA 수혜품목	157.2	180.1	14.6	36.1
FTA 非수혜품목	328.6	319	△2.9	63.9
전체	485.8	499.1	2.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USITC (한국무역협회,'한미FTA 1주년 평가'에서 재인용)

Ⅱ. 한·미FTA 발효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수출 추이

□ (**대미 수출동향**) ´12년 중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이 감소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4% 증가**

□ (**대세계 수출동향**) ´12년 **중소기업의 대세계수출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성과 양호(중견기업 1.8% 감소, 대기업 1.9% 감소, 전체 1.3% 감소)

< 중소기업의 지역별 수출규모 >

(단위 : 백만 불)

구분	연 번	국가명	2011		2012(잠정치)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증감
국가별		전체	101,560	100%	102,668	100%	1.1%
	1	중국	25,421	25.0%	24,401	23.8%	△4.0%
	2	일본	11,490	11.3%	11,432	11.1%	△0.5%
	3	미국	9,775	9.6%	10,165	9.9%	4.0%
	4	홍콩	4,982	4.9%	4,840	4.7%	△2.9%
	5	베트남	4,553	4.5%	5,068	4.9%	11.2%
경제공동체	1	아세안	14,339	14.1%	15,721	15.3%	9.6%
	2	EU	8,090	8.0%	7,825	7.6%	△3.3%

□ **(주요 수출품목)** ´12년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 제조업 제품**으로, 전기기기류(15.4%), 기계류(15.2%), 플라스틱(7.9%), 자동차부품(6.4%), 광학·정밀·의료기기(4.7%) 순

<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 >

(단위 : 백만 달러)

연번	품목	2011		품목	2012(잠정치)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전년동기대비증감
	전체	101,560	100%	전체	102,668	100%	1.1%
1	기계류	16,335	16.1%	전기기기	15,851	15.4%	4.3%
2	전기기기	15,200	15.0%	기계류	15,580	15.2%	△4.6%
3	플라스틱	8,313	8.2%	플라스틱	8,079	7.9%	△2.8%
4	자동차	6,008	5.9%	자동차	6,588	6.4%	9.7%
5	철강	4,575	4.5%	광학·정밀·의료기기	4,826	4.7%	17.9%

Ⅲ. 한·미FTA가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에 미친 영향

□ **(중소기업 전반) '12.4월-'13.2월** 중소기업의 대세계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38% 증가하였으나, **대미수출은 1.26% 증가**

○ 한·미 FTA 발효로 중소기업의 대미수출 증가효과가 유의하게 발생

< 2012-2013년 중소기업의 대미수출 및 대세계 수출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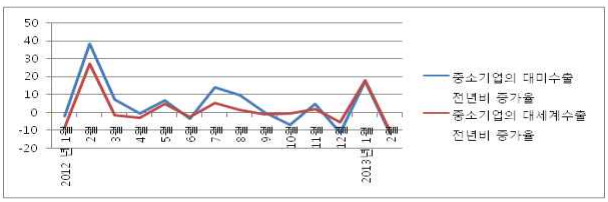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 1월	'13. 2월
대미수출 증가율	△1.8	38.4	7.5	△0.4	6.7	△3.1	14.0	9.6	0.1	△6.7	4.8	△1.2	17.7	△11.6
대세계수출 증가율	△8.2	27	△1.3	△3.1	4.6	△2.4	5.3	1.2	△1	△0.5	1.9	△5.1	17.9	△10.6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대외교역현황, 2012 (추정치)

< 2012-2013년 중소기업의 대미수출 및 대세계수출 추이 >

(전년동기대비, %)



□ **(산업별 분석)** '12.4월-'13.2월 석유화학 및 일부 섬유제품은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은 다소 감소하며 산업별로 상이한 FTA 효과 시현

○ (자동차부품) 대세계수출은 0.6% 증가한 반면, **대미수출**은 **0.21% 감소** (2.5% 관세 철폐)

※ 동기간중 전체 기업의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은 10.17% 증가한 바, 중소기업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필요

○ (석유화학제품) 대세계수출은 2.03% 감소한 반면, **대미수출**은 **10.9% 증가** (0~6.5% 관세 철폐)

○ (전기전자업종) 대세계수출은 3.83% 증가한 반면, **대미수출**은 **2.96% 감소** (0~11.5% 관세 철폐)

※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상당수가 이미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전체 단순평균 관세인하율이 0.02%에 불과

※ 동 보고서에서 전기전자업종은 HS Code 85로 분류되는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기록 등만을 의미하며, 자동차, 우주선, 철도 영화용기기, 의료용기기 등은 불포함

○ (일반기계업종) 대세계수출은 3.68% 감소하였고, **대미수출**은 **5.3% 감소** (0~6.7% 관세 철폐)

※ 동 보고서에서 일반기계업종은 HS Code 84로 분류되는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의미

○ (섬유 및 의류업종) **폴리에스터 섬유, 스웨터**의 경우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양말은 수출이 감소

- (폴리에스터 섬유) 대세계수출은 0.14% 감소한 반면, 대미수출은 17.3% 증가(4% 관세 즉시철폐)
- (스웨터) 대세계수출은 4.2% 증가하였고, 대미수출은 23.5% 증가(32% 관세 즉시철폐)
- (양말) 대세계수출은 13.3% 감소하였고, 대미수출은 18.6% 감소(14% 관세 즉시철폐)

※ '12.4월-'13.2월 미국의 군수용 양말 수요 급감이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

※ 섬유 및 의류업종 분석 기준

- 면사 및 면직물제품의 경우, 원산지기준 등으로 관세인하효과 분리 적용이 곤란하여 우리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으면서 미국측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폴리에스터섬유(미국 HS 55032000), 스웨터 (HS 611030030), 양말 (HS 61159290)을 중심으로 한·미FTA 관세철폐효과 분석

IV. 한미FTA가 중소기업 업종에서 대미수입구조에 미친 영향

□ **(대미 수입동향)** '12.4월-'13.3월 석유화학(9.2% 증가), 섬유(0.1% 증가)는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13.8% 감소) 등은 감소하여 산업별 수입동향 상이

○ (자동차부품) 대미수입 13.8% 감소(0~8% 관세 즉시철폐)

※ 자동차부품의 수입이 감소한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국내부품산업의 대외 경쟁력구조 및 자동차 부품 수급구조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

○ (석유화학제품) 대미수입 9.2% 증가(5~8% 관세 철폐)

※ 전반적인 국내 생산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추정되나 추가 분석 필요

○ (전기전자업종) 대미수입 6.8% 감소(0~13% 관세 철폐)

※ 전반적인 내수 감소와 가격경쟁력에 덜 민감한 전기전자제품의 특성상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

○ (일반기계업종) 대미수입 16.1% 감소(0~8% 관세 철폐)

※ 경기위축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효과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섬유 및 의류업종) 대미수입 0.1% 증가(8~13% 관세 철폐)

※ 높은 관세 철폐에도 불구, 미국 섬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의 한계 및 국내 수요 위축에 따라 대미수입 증가 미미

V. 한·미FTA 발효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생산동향

□ **(제조업)** 한·미FTA 발효 이후 '12.9월까지, **중소기업 생산지수의 변동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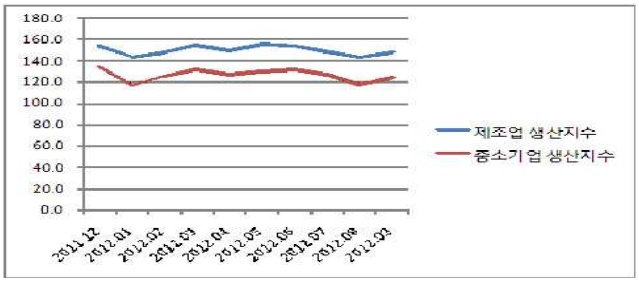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대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체 생산지수와 동조적 추세를 보이며 큰 변화폭을 보이지 않는 상황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총매출 및 원부자재 조달구조에서 대미 교역비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미FTA가 중소기업의 생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한미FTA 발효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추이 >

(2005년=100)



자료: 통계청[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유통업)** 중소유통업은 **한·미FTA 발효 전부터 경영악화 심화** 추세

○ 중소유통업의 매출규모는 '05년 이래 '12년까지 꾸준히 감소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일평균 매출액 추이 >

(단위: 만원)

지역별	2005	2008	2010	2012
전체	5,801.4	5,358.0	4,980.3	4,502.4

Ⅵ. 한·미FTA 발효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고용동향

□ **(고용규모)** ´12.1월-´13.1월 중소기업의 **고용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

○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전체 고용의 73~75% 수준을 유지

<한·미FTA 발효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2012.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2013.1
고용규모 (천명)	8440.1	8390.8	8614.1	8585.5	8609.7	8578.4	8604.4	8590.0	8483.5	8461.2	8498.3	8461.2	8438.8
고용비중 (%)	75.1	74.7	75.3	75.1	75.2	75.2	75.3	75.1	74.0	73.6	73.8	74.0	74.5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 DB

※ 중소기업의 총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그 중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0% 미만인 점은 감안할 때, ´12년 하반기 고용 축소가 한·미 FTA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Ⅶ. 한·미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 중소기업 전반 및 산업전반에 걸친 한·미FTA의 효과는 현재까지 크지 않으나, 한·미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확대의 성공사례는 다수 존재

○ 성공사례 기업은 기술적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미국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분석

※ 주요사례(예시)

- A 기업은 원산지관리 전담팀 구성 및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원부자재(원사) 관리를 통해 '12년 대미 수출이 150% 이상 증가
- B 기업은 다단계 생산공정에서 원산지 정보를 저장한 QR코드를 전달하여 원산지 증명을 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미FTA 활용으로 대미수출 290% 증가
- C 기업은 정부 유관기관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 Korea를 도입하여 농식품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받아 별도 전담인력 없이도 대미 수출시 관세절감 효과 실현 및 사후검증 대비

/끝/